

이덕일의 ‘역사의 창’



태극기와 성조기

고대에 황제국과 제후국을 가리는 중요한 기준은 연호(年號)의 사용 여부였다.

북방의 천자제국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영락(永樂: 391~)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이전 고조선에서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삼국의 연호 사용 전통은 길게 이어졌다. 후삼국 공예는 무태(武泰), 성책(聖冊), 수덕만세(水德萬歲), 정개(政開)라는 4개의 연호를 사용했다.

고대 조영(大祚榮)은 천통(天統)이란 연호를 사용했는데, 그 후대 왕들은 재위 기간 1개씩의 연호를 사용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천수(天授), 광종(光宗)은 광덕(光德)·준풍(峻豐)이란 연호를 사용하다가 이후 중국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인종 13년(1135) 묘청이 서경에서 군사를 일으키면서 국호를 대위(大爲) 연호를 천개(天開)라고 한 것은 고려의 자주성을 되찾고자 한 것이었다.

조선은 개국 초 명나라 주원장의 홍무(洪武)를 사용한 것을 비롯해서 명나라 임금들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명나라가

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승정(崇禎: 1628~1644)이란 연호를 사용하던 의종(毅宗) 주유검(朱由檢)이 1644년 농민봉기군 이자성(李自成)이 북경을 점령하자 자결하면서 연호가 사라진 것이다.

조선 건국(建國)이라는 연호를 사용해 청나라로부터 독립했다는 뜻을 나타냈다. 고종은 이듬해 대한제국을 건립하면서 광무(光武: 1897~1907)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일제강점기 때 일제는 일왕의 연호를 강제로 사용하게 했지만

임시정부는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한 후 국호를 연호로 삼아 ‘대한민국 몇 년’식의 연호를 사용했다.

1948년 국내에 환국정부가 수립되면서 ‘연호에 관한 법률’로 서력기원과 함께 단군기원을 공용 연호로 제정해 1948년을 단기4281년으로 선포했다.

이른바 태극기집회에서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것에 대해 왜 국내 문제에 외국 국기를 흔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들이 많다. 미국 대통령이라도 방한한다면 한미 우호의 상징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들 수 있겠지만 그때도 한국은 미국과 대등한 독립국이란 자부심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한가림역사문화연구소장>

의료칼럼

무릎 관절 손상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나요?



김지현 전남우리병원 관절센터 원장

다리가 발생하게 된다.

오다리는 일차 다리 보다 내측 연골이 먼저 닳아지게 되는 데, 이것은 자동차 타이어나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타이어의 정렬(얼라인먼트)이 맞지 않으면, 타이어의 편마모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특히 생활 속에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이들에게 먼저 나타나고, 최근 들어서는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비만이 원인이 되어, 비교적 젊은 환자의 경우도 많이 있다.

발생하게 되는 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폐경으로 인하여 호르몬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다리 근육량이 적고 관절의 크기도 작아 그만큼 하중을 견디는 힘이 약하고 남성에 비해 해부학적으로 무릎이 안쪽으로 휘는 각도가 더 크기 때문에 오다리 변형과 무릎 관절염이 더 잘 생기는 것이다.

관절 연골 손상 증상은 처음에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편하며, 약간의 이물감을 느낀다. 계속 방치할 경우 통증이 더욱 커지게 된다. 이러한 환자들은 ‘무릎에서 소리가 나면서 쑤시고 아프다’, ‘이유 없이 무릎이 부은 경험이 두 번 이상 있다’, ‘무릎을 굽혔다 펼 때 유연하지 못하고 뻣뻣한 느낌이다’, ‘한 시간 이상 걸으면 뻣뻣하다가 아프고 절뚝거린다’, ‘무릎 뺨 안쪽을 만지면 통증이 있다’, ‘무릎에 힘이 빠지며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라

는 등의 증상을 호소한다.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면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되므로 전문의 진료가 필요하다. 정상 무릎관절과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무릎 X-레이를 비교해 보면, 정상성의 경우 관절 사이 뼈 간격이 일정하지만 퇴행성은 돌기가 만들어져 있고 관절간격이 좁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요즘과 같은 100세 시대,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걸어다니고 싶다’는 소망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을 때는 지체하지 말고 무릎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社說

세월호 선체조사위 반드시 진상 규명해야

해양수산부의 선부르 발표로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이 또 한 번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세월호에서 발견된 유골이 동물 뼈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편 선체조사위원회는 어제 미수습자 9명 가족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옛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선체조사위원 선출이 이뤄짐으로써 선체조사위가 출범한 이후 첫 공식 행보였다. 선체조사위 위원장에는 김창준 변호사, 부위원장엔 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가 선출됐다.

선체조사위의 핵심 임무가 세월호 선체, 유류품, 유실물을 정밀 조사하는 것인 만큼 조만간 진실 규명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사위의 조사 기간은 6개월이지만 4개월 연장도 가능하다. 특히 조사위는 선체 인양 과정 지도·점검, 미수습자 유실물 수습 과정 점검과 함께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도 표명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조사위가 역점을 뒀야 할 것은 선체 조사를 통한 세월호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다. 물론 미수습자 9명의 안전한 수습이 최우선이지만 세월호 침몰의 핵심 증거물인 선체의 수색을 통해 정확한 참사 원인을 찾아야 한다. 그것도 또 다른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울러 기우여겠지만, 이번에 출범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앞으로 정부 합동으로 출범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해 둔다.

대학 개혁 여파로 기초·인문학 고사하나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 재정난 등으로 특정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조선대는 오는 9월 1일부터 구조개혁을 시행키로 하고 학과 평가 결과에서 하위 10% 이내에 든 한문학과와 선박해양공학과를 없애고 국어국문학과와 선박융합학부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무향’(舞鄕) 광주를 이끌었던 공연 예술무용학과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대신 정보통신공학과를 정부통신공학부로 확대하고 정보통신 전공 등을 신설하는 등 이공계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늘릴 방침이다.

타 대학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선대의 이런 방안은 사실상 자발적 혁신으로 보기 어렵다. 사실상 정부가 밀어붙이는 프라임(PRIME·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의 영향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이 막대한 재정 지원을 조건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이 쉽

리 거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그 영향으로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이공계보다 떨어지는 인문·예체능 계열 학과들이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여대는 2015년 무용학과를 비롯한 실버케어학과, 보건 의료시스템학과, 미술치료학과 등 4개 학과를 폐지하고 호남대도 지난해 일본어과를 폐교했다. 정작 대중들은 인문학에 열광하는데 대학에서는 인문학이 고사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재정난 가중으로 지방 대학이 위기라는 데 공감하는 바 없지 않다. 하지만 대학마저 정부의 요구와 시장논리에 따라 특정 학과를 획일적으로 폐지해야만 하는 것일까. 학문의 다양성을 해칠 뿐 아니라 교육 수혜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해도 되는 것일까. 구조조정에 들어가더라도 학문적 명맥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본령을 지키려는 슬기로운 노력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無 等 鼓

아주 오래전, 선배이기도 한 시인에게서 ‘어떤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수업 중 학생들에게 시(詩)를 가르칠 때 꼭 보여 주는 영화라는 설명과 함께였다. 그 후 언급한 작품은 이탈리아 영화 ‘일 포스티노’(Il Postino·우편배달부)였다. 당시는 지금처럼 영화

여기에 눈부신 자연 풍광, 아카데미 음악상을 수상한 음악이 함께 어우러진다. 영화를 보는 내내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서글픈 그물과 나뭇가지에 부는 바람, 절벽의 바람 소리, 아들의 심장 뛰는 소리를 녹음하는 마리오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잔잔하게 사로잡는다.

일 포스티노

어렵사리 영화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보고 난 후의 감흥은 오래갔다. 시를 쓰는 일엔 쟁쟁하지만, 이시가 영화를 활용한 다음날 사망했다는 자막이 올라갈 땐 그의 무덤덤한 듯, 진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도 난다. 영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곧바로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쓴 원작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사서 읽기도 했다.

네루다 역의 필립 느와레는 ‘시네마 천국’의 알프레도 할아버지여서 더욱 반갑다. 마리오로 알려진 마시모 트로는 일엔 쟁쟁하지만,

영화 ‘일 포스티노’는 칠레 출신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네루다와 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배달부 마리오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최근 이 영화를 다시 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마음을 울렸다. 네루다와 함께하며 시와 운율의 세계에 눈뜨게 된 작은 섬의 우편배달부 마리오의 모습은 윤택하면서도 아련하다.

이시가 영화를 활용한 다음날 사망했다는 자막이 올라갈 땐 그의 무덤덤한 듯, 진 고개를 끄덕였던 기억도 난다.

영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아 곧바로 안토니오 스카르메타가 쓴 원작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를 사서 읽기도 했다. 영화 ‘일 포스티노’는 칠레 출신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네루다와 그에게 우편물을 전달하는 일을 하게 된 배달부 마리오의 우정을 그린 작품이다. 최근 이 영화를 다시 보았다. 여전히 아름다웠고, 여전히 마음을 울렸다. 네루다와 함께하며 시와 운율의 세계에 눈뜨게 된 작은 섬의 우편배달부 마리오의 모습은 윤택하면서도 아련하다.

지금 광주극장에 가면 20여 년 만에 다시 개봉한 ‘일 포스티노’를 만날 수 있다. 놓치지 마시라. 어쩌면 당신에게도 ‘내 인생의 영화’가 될지 모르니까.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기 고

대선주자들, ‘호남차별 없다’ 약속해야



권욱 전남도의회 부의장

광주·전남 지역의 경제적 발전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구체적 언급은 없고 ‘미워도 다시 한 번’, 아니면 ‘한 번만 더 손을 잡아 달라’며 오로지 정서적인 지지와 호소만으로 접근하고 있다. 지역발전

이 때문에 지난 21일 전남도의회는 제312회 본회의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지역 공약을 즉각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5개 정당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그 요지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호남소외 해소와 예산 배려 등을 강조해 왔지만, 당선 이후에는 호남과 관련된 대선 공약을 각 지역 국책사업의 끝자락에 뒀다는 지적이었다.

실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호남차별과 홀대로 중요 국책사업은 사실상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전남 7개 공약 중에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건설과 남해안 철도고속화 사업 등 2건,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홀대가 이 지경까지 왔는데 다급하게 구애를 정한들 얼마나 지지를 얻을까?

지금 호남 여론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보였던 정권교체에 대한 절박함보다

는 여유롭고 느긋하다. 따라서 아권 대선 주자들은 호남 구애가 쉽게 결집되지 않음에 애가 탈 것이다. 그럴수록 호남 발전을 위한 비전에 명확한 응답을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호남권 출신들에 대한 인사차별이다. 사실상 전두환·노태우 군부 정권 시절 호남 인사들은 서러울만 당했고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때도, 정권교체를 했던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역차별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정도가 심했다. 호남출신 장·차관은 볼 수 없고 주요 부처 실·국장 과장급까지 씨가 말랐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지난 9년 이상 호남 홀대와 영남 편중 인사가 지속되면서 간부 직원들이 이끌어주던 지역 출신 장·차관이 사라졌다. 그 여파로 실·국장급, 과장급 등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돼 결국 사무관 간부 상당수가 변방을 전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중앙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인맥이 절단 난 셈이다. 지금도 정부 중요 부처로 진출한 호남 출신이 겪는 지역 차별의 응어리는 오랜 기간 동안 축적돼 있고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다.

아권 후보가 되고 대통령으로 당선되 고자 한다면, 최소한 차별을 없애고 인사 투명화를 통해 그동안 자신의 능력과 상관없이 홀대받았던 호남출신들을 대거 기용해야 한다. 역대 정권들이 보여주었던 차별이나 역차별 인사, 그리고 정책의 홀대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그 적폐로 우리지역의 낙후가 심각하고 막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응답을 줘야 한다.

더 이상 차별은 안 된다. 대통령 선거에서 호남 유권자들의 민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선 주자들은 그동안 차별과 홀대를 받아 왔던 호남에 대해 보상 이상의 가치 있는 약속과 선물을 제시하길 바란다.

지난 23일 여러 대선 주자들 중에 첫 번째로 호남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었다. 호남에 대한 차별을 없애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자동차 산업과 글로벌 탄소 밸리 등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미래 프로젝트를 발표했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주자들도 호남을 방문해 수많은 공약을 쏟아내어 공약 풍년이 될 것이다. 진정한 호남인들이 바라는 것은 공약(空約)이 아닌 공약(公約)이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details.